

연구 노트

중동부유럽과 독립국가연합에서의 농지개혁과 사유화

이 양 호*

Abstract

The privatization of agricultural land was commenced since 1989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CEE) and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 The restitution of agricultural land to the former owners was the main form of privatization in CEE except Albania while the distribution with payment to agricultural workers was prevalent in CIS. But the fragmentation of land or the large scale of agricultural land compared to that of the advanced countries like USA and EU countries comes into question. The privatization experience in CEE and CIS is useful in predicting the foreseeable process in the North Korea and China.

1. 서 언

중부 및 동부 유럽의 국가들(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 동유럽과 발틱국가를 포함한 지역으로 이후 CEE로 표현)과 구소련의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이후 CIS로 표현) 지역은 전세계 인구의 7.3%, 전세계 농지의 13.3%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1989년부

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개혁 과정에서 농업을 주도하던 과거의 대규모 집단농장이나 국영농장이 해체되고 농지는 이전의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농장노동자에게 분배되었다.

그러나 농촌토지의 사유화 과정은 CEE와 CIS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CEE에서는 대체로 토지가 이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개인농장이 증가하는 사유화 과정을 거쳤다. 이에 반해 CIS에서

* 한국학술진흥재단 전문위원

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분배되었고 과거의 대규모 농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농업조직이 나타나지만 관리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반환이나 분배를 통해 개인농장이 증가했지만 농지가 세분화¹되어 농업생산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농지의 세분화를 억제하고 규모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현물 토지 보다는 증권으로 반환하거나 분배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소규모 개인농장이 우세한 국가에서는 적정한 규모의 토지를 유지하려는 정책이 장려되고 있지만 토지시장이 아직 발전하지 못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대규모의 기업형 농장 경영이 우세한 국가에서도 과거의 농장이 2~3개로 분리되지만 여전히 선진국 농장 규모에 비하면 훨씬 큰 규모여서 농업생산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CEE 및 CIS에서의 토지개혁과 토지사유화 연구는 북한, 중국 및 베트남이 앞으로 체제전환을 겪으면서 농촌토지의 개혁과 사유화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를 예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 이러한 연구는 아주 미미한 상태인 것이 현실이다.²

본고는 CEE와 CIS의 농지개혁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CEE, CIS에서 농업개혁의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둘째, 농지의 사유화가 이들 양 지역에서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셋째, 농업생산조직, 농지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이들 지역의 농지개혁이 중국 및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농업개혁과 탈집단화

2.1. 농업개혁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CEE와 지지부진한 CIS

농업개혁의 방법을 보면 헝가리, 슬로베니아, 체코 등에서 대체로 농업정책의 분권화를 통해 농업개혁이 이루어졌는데 반해,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에서는 대체로 중앙집권적인 접근방법을 택하였다(표 1).

¹ 세분화(fragmentation)는 토지가 여러 필지의 조각땅으로 나누어지고 규모가 더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세소화(細小化)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토지의 세분화 현상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것을 토지의 집중화(concentration, consolidation)라고 한다.

² 동구의 농지에 대한 연구로는 김종무 (2000), 김영훈(1996), 홍성규, 김경량(1997) 등의 연구가 있음.

표 1 CEE와 CIS에서의 농촌발전정책

상향식 ↓ 하향식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알바니아	체코	슬로베니아
	러시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중앙집권적, 관료적 접근 ↔ 분권적 접근
 자료: Federal Institute of Agricultural Economics (FIAE)에 의해 1996년 여름에 행한 서베이.
 Greif 1997, Table 18에서 재인용.

농업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혁에서 CEE가 CIS보다 훨씬 앞서 나갔다. 1997~98년의 경우 정책 및 제도개혁에 대한 평균지수를 보면 CEE가 6.6을 보인데 반해 CIS는 3.8을 보였다.(Lerman 2001, 12) 정책 및 제도 개혁지수는 Lerman에 의해 농업개혁지수, 정치적 자유지수(Freedom Index), 경제적 자유화지수(Liberalization Index), 신뢰지수, CPIA(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지수를 합하여 국가별로 평균을 낸 지수이다. 이것은 농업 부문뿐만 아니라 더 광범한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정치적 차원의 제도 정책 개혁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1이면 개혁이 안된 것으로 10이면 개혁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업과 관련한 농업개혁지수를 보면 1999년 CEE가 7.6인데 반해 CIS는 4.9에 불과했다.(표 2, 표 3) 농업개혁지수는 농산품에 대한 가격과 시장, 토지개혁, 사유화

와 농업생산품 공급, 농업재정금융, 공적제도라는 5개 항목을 각각 국가별로 10분위로 지수화하고 다시 평균한 지수로서 1이면 중앙계획경제가 여전히 존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10이면 완전시장경제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개혁을 시작한지 5년 후의 자유화 지수는 CEE가 81, CIS가 54를 보였다. 자유화 지수는 de Melo 등(1996)이 개발한 지수로 가격자유화와 경쟁, 대외무역체제, 대규모 사유화, 소규모 사유화, 은행개혁의 5개 분야를 국가별로 지수화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100에 가까울수록 사유화와 시장화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지개혁의 평균지수도 1999년 CEE가 8인데 반해 CIS는 5.3을 보였다. 토지개혁은 10분위로 나누어 대규모 농장이 주도하는 체제(1-2), 토지사유화의 제도적 틀을 가지고 최근 농장구조개편을 시행하는 경우(3-4), 토지사유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토지등기가 끝나지 않고 토지시장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7-8), 사유에 기초한 농장체제와 활성화된 토지시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9-10)를 지수화한 것이다. 토지개혁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농지구조에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 10에 가까울수록 토지개혁이 완성되고 시장화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개혁시작 5년 후의 평균 농업생산성 지수는 개혁원년과 비교하여 CEE가 97.0을 보인데 반해 CIS가 66.3을 보였다. 100이상이면 생산성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하면 생산성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농업노동생산성이 증가한 국가는 개혁이 거의 완성되고 있는 데 반해 CIS에
 알바니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다. 서는 개혁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이러한 지표들은 대체로 CEE에서 농업 나타내 주고 있다.

표 2 CEE의 탈집단화, 자유화, 농업생산성, 농업개혁, 토지개혁 지수

	농업개혁지수 (ARI) : 1999년	자유화지수 (LI) : 개혁5년후	토지개혁지수 (LR) : 1999년	평균농업노동 생산성지수 (ALPI) : 개혁 5년후	탈집단화지수 (DI) : 해당 년도
CEE	ARI=7.6	LI= 81	LR=8	ALPI= 97.0	DI= 52.1
알바니아	6.8	70	8	111	94.2 (1995)
라트비아	8.4	81	9	54	94.7 (1997)
리투아니아	7.6	89	8	61	60.4 (1996)
루마니아	6.6	68	8	77	60.2 (1998)
불가리아	7.6	64	8	61	45.4 (1995)
에스토니아	8.4	93	8	84	37.5 (1994)
체코	8.6	90	8	144	24 (1998)
헝가리	8.8	86	9	158	51.1 (1996)
슬로베니아	8.0	82	9	85	50 (1997)
슬로바키아	7.6	83	8	141	3.2 (1998)
폴란드	7.8	86	8	91	n.a
크로아티아	6.6	n.a	6	n.a	n.a
마케도니아	6.6	n.a	7	n.a	n.a

자료: 개혁5년후의 LI(Liberalization Index)와 ALPI(Agricultural Labor Productivity Index)에 관해서는
 Macours and Swinnen 1999, 44-47. ARI(Agricultural Reform Index)와 LRI(Land Reform
 Index)에 대해서는 Csaki and Tuck 2000, 18. DI에 관해서는 Swinnen and Marthijs 1997, 350,
 Table 10.4. 그리고 Marthijs and Swinnen 1999, 24, Table 2. DI, LI, ALPI는 100을 기준한 것
 이며 ARI, LR은 10을 기준한 것임.

표 3 CIS의 탈집단화, 자유화, 농업생산성, 농업개혁, 토지개혁 지수

	농업개혁지수 (ARI) : 1999년	자유화지수 (LI) : 개혁5년후	토지개혁지수 (LR) : 1999년	평균농업노동 생산성지수 (ALPI) : 개혁 5년후	탈집단화지수 (DI) : (1995년)
CIS	ARI=4.9	LI= 54	LR=5.3	ALPI= 66.3	DI=20.9
아르메니아	7.2	49	8	47	81.8
키르기스스탄	6.4	82	7	66	23.2
그루지야	6.0	49	6	85	21.2
벨라루스	1.8	48	2	72	15.2
우크라이나	5.4	51	6	65	14.1
우즈베키스탄	2.0	58	2	82	13.1
러시아	5.6	77	5	63	12.1
투르크메니스탄	2.0	22	3	93	7.1
카자흐스탄	5.8	61	5	63	0.0
아제르바이잔	6.2	44	8	56	n.a
타지키스탄	4.2	39	5	46	n.a
몰도바	6.0	68	7	58	n.a

자료: <표 2>의 출처와 동일

2.2. 탈집체화 지수가 높은 CEE와 낮은 CIS

탈집단화(decollectivization)는 집단생산단위가 개인농장으로 분할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Mathijs and Swinnen 1997, 3) 탈집단화는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라트비아에서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데 반해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슬로베니아에서는 느리게 진행되었다.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비교적 중간 정도의 탈집단화과정을 겪게 된다. Erik Mathijs와 Johan F.M. Swinnen이 개발한 탈집단화 지수(Decollectivization Index: DI)³를 통해 보면 대체로 탈집단화 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CEE국가이고 지수가 낮은 국가는 대부분 CIS국가이다.⁴ 예외는 아르메니아로서 탈집단화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탈집단화지수는 생산성, 노동력, 농장의 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째, 집단농장의 생산성이 높고 생산이 자본집약적인

지역에서 탈집단화가 낮다고 할 수 있다. 헝가리와 같이 집단농장의 농업생산성이 높은 지역보다 알바니아와 같이 집단농장의 농업생산성이 낮은 국가들의 탈집단화율이 높다. 둘째, 15% 이상의 활동력있는 노동력이 농업에 고용된 국가(알바니아, 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에서 높은 탈집단화를 보인데 반해 농업종사자가 10% 미만인 국가(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에서는 탈집단화율이 낮다. 셋째, 대규모농장이 과거의 집단농장을 대체한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탈집단화 지수가 낮으며 집단농장이 소규모 농장으로 분리된 알바니아, 라트비아에서 높게 나타난다(Mathijs and Swinnen 1997, 8-23).

탈집단화 지수를 대변하는 개인경작지는 CEE에서는 1990년 농경지의 20%에서 1996년 64%로 증가한데 반해 CIS에서는 4%에서 14%로 증가하였다.⁵ CEE 4개국(알바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베니아)과 CIS 2개국(아르메니아, 그루지야)에서 농업은 전반적으로 개인사영되고 있다. 나머지 17개국(CEE 7개국, CIS 10개국)에서 대규모의 집단농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Lerman 1999, 7).

개인경작지와 관련하여 90년대 전반기에 급격한 변화를 겪은 대표적 국가는 알바니

³ Mathijs와 Swinnen에 의해 개념화된 탈집단화 지수 1995년의 경우 $DI = (IND95 - IND89) / (100 - IND89) \times 100$ 를 통해 얻어졌다. 1995년의 전체농지에서 개인농장이 차지하는 비율(IND95)과 1989년의 전체농지에서 개인농장이 차지하는 비율과의 차이를 100에서 1989년의 전체농지에서 개인농장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얻어진 값이다. 또한 이들은 DI를 IFI(Individual Farming Index)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⁴ 탈집단화지수는 한 국가내에서도 지역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북부에서는 집단농장의 탈집단화가 42%에 달하지만 트랜스다뉴비아(Transdanubia)에서는 21%로서 북부가 거의 2배에 이른다. 루마니아의 경우에도 1995년의 경우 전체농지 중 개인농장이 아르게스(Arges) 지역에서는 7.2%인데 반해 시비우(Sibiu) 지역에서는 97.2%였다(Mathijs and Swinnen 1997, 4-5).

⁵ 개인이 반환과정을 통해 받은 토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최종 토지소유권증(final title)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식통계보다 사유화가 더 많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국가소유 토지는 국가에 의해 경작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소유로 등록된 토지도 사실상은 개인이나 회사가 경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Lerman 1999, 6-7).

표 4 농지 중 개인경작지 비율(%)

CEE	1990 (개혁전)	1996 (개혁후)	CIS	1990 (개혁전)	1996 (개혁후)
알바니아	0 (3)	100 (95)	아르메니아	4 (7)	31 (95)
슬로베니아	92 (83)	96 (90)	그루지야	7 (12)	23 (50)
폴란드	77 (76)	82 (85)	우크라이나	7 (6)	17 (10)
루마니아	12 (14)	67 (56)	몰도바	9 (7)	16 (12)
헝가리	6 (13)	54 (22)	벨로루시	7 (7)	12 (16)
불가리아	13 (14)	52 (44)	러시아	2 (2)	11 (8)
체코	0 (1)	23 (20)	키르기스스탄	1 (4)	25 (34)
슬로바키아	5 (2)	5 (5)	카자흐스탄	0.2 (0)	13 (5)
라트비아	5 (4)	95 (81)	아제르바이잔	3 (2)	6 (15)
리투아니아	9 (9)	67 (64)	타지키스탄	2 (4)	4 (5)
에스토니아	9 (4)	67 (41)	우즈베키스탄	2 (5)	4 (13)
			투르크메니스탄	0.2 (2)	0.3 (3)
CEE 평균	20 (20)	64 (55)	CIS 평균	4 (5)	14 (21)

자료: Lerman 1999, 4; ()안은 Macours and Swinnen(1999, 47)의 분류통계로 CEE는 농지, CIS는 경작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아, 라트비아라고 할 수 있으며 CIS는 대부분 개혁이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표 4). 개혁이 느리게 진행된 이유는 농민들이 처음에는 사유화를 적극 지지했지만 점차 농민들의 사유화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우 농민들의 토지매매에 대한 태도조사를 보면 농민의 52.7%가 찬성하는데 반해 농정기업 노동자나 관리인의 79%가 반대하였다.(Brooks et al. 1996, 63) 1990년 러시아에서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농민의 52%가 사유화를 지지하였고 40%가 적극 반대하였다. 그러던 것이 1995년경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유화를 지지하는 농민의 비중이 32%로 떨어졌다.(Norsworthy and Paluba 2000, 59) 이러한 이유는 사유화가 바로 농지매매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고 비농수입의 기

회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농지의 사유화

3.1. 농지를 반환한 CEE와 분배한 CIS

CEE와 CIS에서의 사유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과정을 거친다.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⁶ 농지의 반환(반환, 보상), 분배(유상분

⁶ 토지와 자산은 다르게 처분되었다. 집단농장이 사용한 많은 자산은 처음에는 사유였지만 점차 대부분 집단소유로 변화했다. 건물, 가축, 기계와 같은 자산은 물리적으로 새로운 자산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집단소유로 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토지는 새로운 유형으로 변형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외였다. 토지는 대부분 현물로 반환된데 반해 비토지자산은 몇몇 국가에서는 반환되었지만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집단농장에서의 증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배, 무상분배), 매각(매각, 임대, 임대후 매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농지의 반환은 원소유자에 대해 토지를 반환하는 것이며 반환이 불가능할 때는 그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을 하는 것이다. 농지의 분배는 농장노동자에 대해 토지를 분배하는 것으로 유상분배, 무상분배로 나눌 수 있다. 매각은 일종의 유상분배로 볼 수 있지만 농장노동자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농민이나 농업기업이 농지를 경작하기를 원할 때 국가로부터 매각받거나 임대받아 경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EE국가(알바니아 제외)에서는 토지의 반환, CIS국가에서는 토지의 분배가 일반적 경향이다(표 5). 알바니아를 제외한 CEE 및 발틱국가에서는 농지를 이전의 소유자에게 반환한데 반해 CIS국가와 알바니아에서는 경작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전략을 택했다.⁷ 반환은 보상보다는 토지로 반환한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고 분배의 경우 유상분배가 대부분이었다.

알바니아의 경우 이전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분배한 이유는 반환은 봉건적

인 3%의 인구에게 반환되는 것을 의미하고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농민은 소외되기 때문이다.⁸ 문제는 소농장을 소유한 농민들은 분배나 반환이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반환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데 있다.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혼합된 형태를 취하여 토지는 이전의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동시에 사회적 평등을 위해 농업노동자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었다. 루마니아에서는 부분적으로 현물토지로 분배하기도 했다. 다른 CEE국가에서는 농업노동자들이 토지 획득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토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전액을 지불해야 했다(Lerman 1999, 3). CEE에서 국영농장이 사유화 대상이었던 폴란드는 반환하지 않고 매각을 선택했다. 2차대전 이후의 토지개혁에서 대부분의 토지를 이미 소규모 농장 소유자들에게 분배했기 때문이며 사적 개인농장이 농지의 76%를 차지하는 상태에서 농지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⁹ 또한 폴란드에서의 국영농장은 대부분 서부 폴란드에 집중되어 있고 2차대전 이전에는 독일인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환하기 보다는 매각하는 선택을 했다. 따라서 폴란드는 국영농장으로 국유화된 토지의

바우처(vouchers)를 사용하여 사유화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토지자산을 구매하는데 사용되었다.(Swinnen 1997a, 3-6)

⁷ Swinnen(1997a, 5)은 반환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CEE 국가들은 전체 농지의 70%에 달하는 집단농지에 대해 비효율적 토지개혁을 선택했다. 이에 반해 국영농장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인 사유화 과정을 선택했다. 알바니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에서만 반환보다 효과적인 개혁 조치들이 사유화 과정 농지의 30%에 적용되었다. 알바니아와 발틱국가들만이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에 대해 동일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⁸ Cungu and Swinnen(1998, 5)은 이전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역사적 정의의 대안(HJO: Historical Justice Option),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사회정의적 대안(SEO: Social Equity Op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⁹ 폴란드에서는 1990년 사적 개인농장이 농지의 76%, 기업농장이 4%, 사기업농장이 0%, 국영농장이 19%이던 것이 1996년 각각 82%, 3%, 5.5%, 7%로 변화했다.(Milczarek 2000, 2)

표 5 CEE와 CIS에서의 농지의 사유화 전략

	반 환	분 배		혼합 또는 예외
		현 물 토 지	증 권	
CEE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CIS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몰도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로루시, 우즈베키스탄	

20%를 경매와 매각을 통해 사유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Lerman 2000, 6). 슬로베니아의 경우에도 이미 83%의 농지가 사적 개인농장이었지만 다른 CEE 국가와 달리 국영농장의 토지를 매각(임대)하지 않고 반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EE에서 분배가 아닌 반환정책을 택하게 된 이유는 다른 농업자산과는 달리 지도상에 나타나는 토지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었고 CEE에서는 공산주의 정권하에서도 법적으로 사적 소유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CEE에서 집단경작에도 불구하고 많은 토지가 명목상으로는 사유였으며 1차대전과 사회주의 정권하에서도 토지대장에 소유자 자산으로 등록되어 존속했다(Lerman 2000, 5). 알바니아와 다른 CEE국가들과의 차이는 알바니아의 농지가 개혁시점 무렵 형식적으로 국가소유였던데 반해 다른 CEE국가에서는 집산화시대에도 형식적으로는 사유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데 있다(Cungu and Swinnen 1997, 82).

CIS에서 분배를 위주로 하게 된 이유는 토지가 법적으로 이미 국유화되어 있었다는 데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1917년 혁명 이후 국유화되었고 발틱국가와 알바니아에서는 2차대전 이후 국유화되었다(Swinnen 1997a, 7). 토지의 사적소유는 중앙아시아 지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사용권(user rights)은 인정되었지만 이전권(rights of transfer)은 인정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사용권은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명목상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전권이 없었다.(Lerman 1999, 3; Mathijs and Swinnen 1997, 17; Macours and Swinnen 1999, 13-14) 특히 CIS에서는 CEE와는 달리 토지에 대한 반환요구가 미미했다는 것도 분배방식을 택하게 된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반환이나 보상요구는 발틱국가들, 서부 우크라이나, 몰도바, 서부 벨로루시에서만 제기되었고 나머지 구소련 지역에서는 토지반환의 요

구가 없었다(Swinnen 1997a, 10).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의 경우 농지가 이미 1945년 이전에 국유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가 아닌 반환정책을 택하게 된 이유는 러시아인 등 다른 민족이 라트비아 인구의 46%, 리투아니아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의 소유자들은 대부분 라트비아나 리투아니아인들이었기 때문에 반환하는 정책을 추구했다.

CIS와 알바니아에서는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사이에 소유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농장이나 국영농장에 분배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에 반해 CEE국가내에는 집단농장과 국영농장간의 토지개혁에 차이가 있었다. 많은 CEE 국가들에서는 집단농장은 이전 소유자에게 반환되었지만 국영농장은 다른 과정을 통해

사유화되었다(표 6).

첫째, CEE에서 집단농장은 대부분 공산화 이전의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 예외는 헝가리와 알바니아였다. 헝가리에서는 집단농장의 1/3이 보상증권(compensation vouchers: karpotlasi jegy)으로 경매되었고 1/3은 농장 노동자들에게 분배되었다. 알바니아는 집단농장을 농가에 분배하였다. 둘째, 국영농장의 경우 대부분의 CEE 국가에서는 매각될 때까지는 임대하는 방법을 택했다. 예외는 슬로베니아와 알바니아로서 슬로베니아에서는 국영농장이 반환되었고 알바니아에서는 농장노동자에게 분배되었다. 셋째, 분배되고 남은 집단농지의 경우 알바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국가소유로 되었다. 예외는 루마니아로서 정부가 이전의 소유주에게 반환될 최고한도를 10헥터까지로 정하고 나머지는 농장

표 6 CEE에서의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반환 또는 분배

국 가	집 단 농 장	전체 농지중 비율(%)	국 영 농 장	전체 농지중 비율(%)
알바니아	분배	76%	분배	24%
불가리아	반환	72%	다양한 방법	9%
체코	반환	61%	매각(임대)	25%
동독	반환	82%	매각(임대)	7%
헝가리	반환+ 분배+ 보상증권 매각	70%	보상증서 매각+ 매각(임대)	12%
라트비아	반환	57%	반환	38%
리투아니아	반환	62%	반환	30%
폴란드	-	4%	매각(임대)	19%
루마니아	반환 + 분배	58%	미확정 + 반환	28%
슬로바키아	반환	71%	매각(임대)	15%
슬로베니아	-	0%	반환	17%
러시아	분배(증권)	40%	분배(증권)	58%
우크라이나	분배(증권)	n.a	분배(증권)	n.a

자료: Swinnen 1997a, 30, Table 1. Swinnen 1997b, p. 365에 있는 Table 13.1.은 일부 잘못된 도표임.

노동자들에게 분배하였다(Swinnen 1997a, 3-7).

3.2. 수혜자, 대상농지 및 반환 준거시점

토지를 반환하는데 있어 누구에게 반환할 것이냐, 어느 시점을 반환의 준거시점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반환의 대상은 어떤 토지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토지를 누구에게 반환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동구국가들은 이전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지켰던 농장 소유자들에게 반환하였다. 폴란드와 알바니아를 제외한 CEE국가들은 농장의 많은 부분이 이전의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¹⁰ 루마니아에서만 법적소유권을 상실한 이전의 소유자에게도 반환하였다. 이전에 농장소유주가 아니었던 농장노동자에 대해서는 헝가리와 루마니아에서만 토지소유권의 수혜자로 인정받아 무상으로 농지를 분배받을 수 있었고 다른 CEE지역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돈을 지불하고 분배를 받을 수 있었다.

반환의 준거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문제였다. 왜냐하면 1930년대와 2차대전 직후 여러 차례의 토지개혁을 통해 소유권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¹¹

1차 세계대전 동안 농민들의 토지분배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1차대전이 끝나자 농민들의 정당도 나타나 토지개혁으로 이어졌다. 2차 대전전의 상황을 보면 CEE지역에는 대체로 3개 유형의 농장들이 나타난다. 첫째, 작은 규모의 경쟁력 없는 농장들이 나타난 지역이다. 1차대전 전에 급진적 개혁을 통해 나타난 알바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양차 세계대전사이에 급진적 개혁을 통해 나타난 루마니아, 체코가 있다. 둘째, 토지개혁을 통해 생존력있는 농장들이 나타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있다. 셋째, 대규모 농장이 계속 존속한 헝가리와 폴란드가 있다. 2차대전이 끝나고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토지개혁이 시작되었다.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통해 공산화시켰고 루마니아와 폴란드에서는 스탈린이 공산정권을 강요했다.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스탈린은 처음에는 연립정부에서의 공산주의자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트루만 독트린 이후 직접 통제하기에 이른다. 토지개혁법이 통과되고 헝가리 64%, 폴란드 50%, 체코슬로바키아 17%, 루마니아 8%, 유고슬라비아 6%, 불가리아 2%의 토지가 재분배된다. 1948~49년부터 토지가 집단화되기 시작한다. 스탈린이 죽고 집단화가 주춤했다가 다시 재개되었다. 완전한 집단화는 1962년경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서 이루어진다.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집단화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다. 결국 소련식의 집단화는 동구권에서 급진적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Mathijs 1997, 33-41) CIS지역은 구소련 지역으로 1920년대 집단

¹⁰ 알바니아의 경우에도 몇몇 산간지역에서는 집단농장 소유권이 이전의 소유자에게 반환되기도 했지만 일반적 현상은 아니었다. 토지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Swinnen 1997a, 3-4)

¹¹ 90년대의 토지개혁은 CEE의 경우 20세기에 들어 4번째 겪는 토지개혁의 물결이다. (Mathijs 1997, 33)

화되기 시작했다. CEE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2차대전 이후를 준거기점으로 하였다. 루마니아, 헝가리, 이전의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반환이 1945년 소유기점에 의하지 않고 2차대전 이후 공산당이 주도한 1945~1949년의 토지개혁에 준거시점을 맞추었다. 체코에서는 1948년 2월, 헝가리에서는 1948년, 루마니아에서는 1947년을 반환 준거기점으로 하였다(Swinnen 1997a, 9).

반환대상의 토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CEE국가들의 토지법은 가능하면 토지를 역사적 범주(historical boundaries)에서 반환할 것을 규정하였다. 반환할 수 없을 경우 유사한 크기와 질이 비슷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받았다.¹²

현물토지로 분배할 것이냐 증권(shares)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였다. CIS국가에서 농업노동자에 대한 농지의 분배는 두 개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농지를 집단농장 내의 농가와 집단농장 외의 독립농가에 분배하는 형태다. 다른 형태는 개인적 분배권을 현물토지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의 권리증서로 교부하는 것이다. 토지가 직접 분배되지 않고 토지의 분배권을 가진 농가가 집단농장을 이탈하거나 토지할당을 포기할 때까지 집단농장

이 경작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인 개혁을 피하고 농업구조 개편을 완만하게 이끌 수 있는 대안이었다(Lerman 1999, 4).

4. 농업경영조직과 농지의 규모경영

4.1. 집단경영체제가 유지되는 CIS와 개인경영의 CEE

탈집단화된 이후 과거의 대규모 집단농장조직을 대체하는 새로운 조직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CIS에서는 탈집단화 이후의 농업조직이 여전히 과거의 전통적인 경영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집단경영농장이 소유권을 가지는 구조하에서 농장의 생산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Mathijs and Swinnen 1997, 6).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재편된 농장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몰도바와 아제르바이잔의 농업조직은 개인농장과 집단농장의 중간형태를 띠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대규모의 집단농장이 개인적 임대계약을 기초로 재편되었다(Lerman 1999, 8).

CEE에서는 과거의 집단경영 형태에서 벗어나 개인농장이 지배적이다(표 7). 폴란드,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CEE에서 1990년 이전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이 90%의 농지를 경작했지만 1990년 이후에는 경작하는 비율이 40%대로 떨어진다는(Lerman 2000, 9). CEE 7개국(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¹² 역사적 영역에서의 반환(restitution in historical boundaries: RIHB)은 토지소유권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가장 급진적인 정책이다. 이에 반해 비교적 영역에서의 반환(restitution in comparable boundaries: RICB)은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의 소유자나 그 후손에게 주지만 새로운 소유자가 집단의 확인 없이는 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유권이 많은 제한을 받는다.(Rabinowicz and Swinnen, 1997, 8)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14). 특히 농장의 반환은 대규모 집단농장

표 7 전체농지에서 개인, 기업, 협동, 국영농장이 차지하는 비율(%)

	개인농장	기업 농장	협동농장	국영농장
폴란드 (1996)	82	8	3	7
헝가리(1996)	28	14	28	4
체코(1998)	24	41	34	1
슬로베니아(1997)	96	-	-	4
에스토니아(1997)	63	37	-	-
루마니아(1998)	65	-	18	17
불가리아(1995/6)	52	-	42	6
슬로바키아(1998)	8	25	54	1
리투아니아(1996)	67	-	-	33
라트비아(1997)	95	4	-	1

자료: Marthijs and Swinnen 1999, 22, Table 1.

에서 40%의 농지가 대규모 기업형 농장에 의해 경작되고 있다. 새로운 농업구조로 합작회사(joint stock companies),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사영회사(private companies)가 나타났다. 집단농장을 대체하는 기업농장이나 협동농장이 나타났다지만 과거 형태와는 달리 시장판매를 목표로 하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CIS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헝가리, 체코, 리투아니아에서는 많은 대규모 농장이 시장지향적 기업으로 전환되었다. 루마니아에서는 적어도 몇몇 대농장들은 새로운 결사체이거나 개인토지소유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협동농장 형태로 변화였다.

4.2. 농장의 세분화와 규모 문제

반환이나 분배는 토지의 세분화 현상을 가져와 농업의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Mathijs and Swinnen 1997,

의 해체와 토지의 세분화를 가져온다.¹³ 급진적 토지개혁을 한 알바니아는 다른 국가들과 크게 구별된다. 알바니아의 토지 사유화 과정에서 나타난 세분화 현상을 보면 95% 이상의 농지가 49만개 개인사영농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평균 농장규모는 1.05 헥타의 농지를 평균 3.3개의 분리된 필지로 가지게 되었다(Cungu and Swinnen, 1997, 75). 슬로베니아, 폴란드, 라트비아에서는 사실상 모든 토지가 개인경작으로 되어 있고 대규모 집단 및 협동농장이 없었

¹³ 물론 농지의 세분화 현상은 문화적 전통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탈집단화 이전의 토지소유에 있어서 토지상속의 문제를 보면 슬로바키아와 체코는 다르다. 역사적으로 슬로바키아는 나폴레옹 법전에 의해 토지상속이 이루어져 후손이 동등한 토지분배를 받았고 따라서 탈집단화 초기 토지가 세분화되는 비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체코에서는 장자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의 세분화 현상은 슬로바키아보다 덜하다고 할 수 있다(Mathijs and Swinnen 1997, 17-18).

다. 폴란드와 슬로베니아는 공산주의 시기 등 선진국의 농장규모와 비교해 보면 여전

표 8 농장이 평균 규모(헥터)

	집단/협동농장		국 영 농 장		새로운 기업형 농장	개 인 농 장	
	1990년 이전	현 재	1990년이전	현 재	현 재	1990년이전	현 재
불가리아	4,000	637	1,615	735	-	0.4	1.4
체코	2,578	1,447	9,443	521	690	5.0	34.0
슬로바키아	2,667	1,509	5,186	3,056	1,191	0.3	7.7
헝가리	4,179	833	7,138	7,779	204	0.3	3.0
폴란드	335	222	3,140	620	333	6.6	7.0
루마니아	2,374	451	5,001	3,657	-	0.5	2.7
에스토니아	4,060	-	4,206	-	449	0.2	19.8
라트비아	5,980	-	6,532	340	309	0.4	23.6
리투아니아	2,380	-	1,880	-	310	0.5	7.6
슬로베니아	-	-	470	371	-	3.2	4.8

자료: Lerman 2000, 11, Table 3.

에도 살아남은 소규모의 효과적인 소유자가 경작하는 농장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 전의 소규모지만 비교적 근대화된 사유구조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폴란드에서의 사영농장의 20%는 6개 이상의 필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3.9%는 필지간에 10km 이상 떨어져 있다. 사영농장은 90년대 중반 알바니아 1.3헥터, 루마니아 3.8헥터, 불가리아 4.1헥터, 헝가리 11.0헥터, 폴란드 12.1헥터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Euroconsult 1995, 31).

새로 나타난 집단경영체제를 보면 이전과 비교하여 농장의 규모도 감소하였다. 농장이 반환되어 사유화되고 새로 나타난 농장조직들도 2~3개의 작은 단위로 분리됨에 따라 농장의 규모도 1990년 이전보다 훨씬 작게 되었다. 개인농장은 약간 규모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8).

그러나 과거 구소련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규모가 크게 감소했지만 미국, EU국가

히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¹⁴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4개국은 90%의 농장(소규모 개인농장)이 10% 이하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데 반해 상위 10%의 농장(대규모 농장)이 90%의 토지를 경작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시장경제의 규모차원에서 세분화되어 있다(표 9).

러시아의 경우 국가소유의 토지가 1990년 100%에서 2000년 40% 이하로 떨어지지만 개인농장은 농지의 14% 이하를 통제하고 나머지 85%는 대규모 농장에 의해 운영된다. 상위 10%의 대농장이 95%의 토지를 경작한다. 러시아에서 대규모 농장기업이 85%의 농지를 가지고 전체의 40%를 생산하는데 반해 소규모농장은 15%의 토지

¹⁴ 과거 구소련의 경우 98%의 농장이 2% 이하의 토지를 경작한데 반해 2%의 대규모 농장이 98%의 토지를 경작했다.(Lerman 2000, 15)

에서 60%의 생산을 하고 있다(Lerman

표 9 상위 10%의 대규모 농장이 차지하는
농지비율(%)

	농지 %	농장구조의 성격
라트비아	20	과도한 세분화
리투아니아	30	
슬로베니아	40	정상
폴란드	50	
루마니아	55	
에스토니아	60	
체코	82	이중구조
불가리아	90	
헝가리	92	
슬로바키아	97	
러시아	95	

자료: Lerman 2000, 15, Table 4; Lerman 2001, 7.

2001, 8). 미국은 상위 10%의 대규모 농장이 농지의 35%, EU국가는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대부분의 CEE, CIS지역에서는 이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EU국가에 비하면 아직도 농장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농장의 규모와 관련하여 사유화 과정에서 적절한 규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지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농지의 규모 경제(economy of scale)가 필요한 이유는 농지가 적정한 규모 이상이거나 이하가 될 때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¹⁵ CEE와 CIS에서 토지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는 하지만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CEE지역이 CIS보다 농지거래량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러시아의 경우 1993~96년 4년 동안 20만 헥타가 거래되어 러시아 전체농지의 0.1%를 차지하는데 반해 루마니아에서는 1998년 한 해만 농지의 1.0%, 슬로바키아와 체코에서는 0.2~0.3%의 농지가 거래되었다.(Lerman 2001, 2) 또한 CEE에서 CIS보다 더 많이 사유화되고 빨리 진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두는 등 급진적인 변화를 억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시장화는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전권(transfer rights)과 관련하여 CEE와 아르메니아에서는 개혁 초기부터 정착되었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1994년에 정착되었다. 다른 CIS지역에서는 법을 통해 이전권을 금지시켰다(Macours and Swinnen 1999, 13-14). 사유화를 허용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루마니아의 경우 집단농장 농지는 10년간 매매될 수 없었고, 구소련의 CIS의 경우 농가가 경작을 원하지 않으면 다시 국가가 이 토지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용자에게 분배하기도 했다.

5. 결론: 요약 및 시사점

CEE 및 CIS에서의 농지의 사유화 과정을 보면 CEE에서는 급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종착점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CIS에서는 완만하게 진행되어 왔고 아직 여정

¹⁵ 중국의 절강성에서 행한 적정 경지면적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평균자본의 각도에서 볼 때 100~150 무(畝), 생산량 안정도에서 보면 100~250 무, 기계화능력을 고려하면 450~500 무가 합리 경영규모로 보고 있다. 이양호(1998, 263) 참조.

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CEE에서는 토지의 반환을 통해 사유화하는 과정을 거쳤고 CIS에서는 분배를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개인농장이 등장하고 특히 과거의 집단농장이나 국영농장을 대신하는 기업형 농장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농지규모는 미국, EU국가의 농지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대규모 농장이 우세하며 개인농장의 경우에는 농지의 세분화가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농지개혁이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토지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Daniel Bromley(2000, 16)같은 학자는 CEE, CIS 등에서의 사유화 과정은 시장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론자들에 의해 “즉각적인 사유화”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결함있는 전환과정”(flawed transition process)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유화가 정착되려면 농지의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CEE, CIS에서의 농지개혁은 북한 및 중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북한의 경우 1972년 이후 농지의 사적소유는 인정되지 않고 북한의 현행법상 국공유로 되어 있으며 공부(公簿)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홍성규, 김경량 1997, 27). 따라서 농지사유화 과정에서 원소유자에게 농지를 반환한 CEE유형보다는 농지를 분배한 CIS유형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배의 형태에 있어서도 북한에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강하고 농가가 아직은 농업의 수입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루마니아처

럼 무상분배의 형태로 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통일이 될 때 남한에 거주하는 원소유주가 있을 경우 원소유주에게는 반환을 하는 것보다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농지개혁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경우 도시토지는 국가소유인데 반해 농지는 집단(集体)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사용권은 농민들이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중국에서 1980년대부터 시행된 가정승포책임제는 집단구성원들의 평등한 사용권에 대한 분배를 보장하기 때문에 농촌인구의 증감에 따라 재조정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즉 몇 농가만 문제가 생겨도 농촌 마을 전체에 대한 재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주식합작제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아직 농지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앞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집단이 계속 가지기 보다는 소유권 자체가 무력화하고 사용권이 소유권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종무. 2000. “동유럽 국가의 경제사정과 농업정책 개혁방향: 농지의 사유화 정책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정책연구』 27.3, 182~196.
- 김영훈. 1996. “동구권의 농지사유화 실태와 시사.” 『농촌경제』. 1996-12, 95~109.
- 홍성규, 김경량. 1997. “체제전환이후 사회주의 선행개방국가의 농지사유화에 대한 비교연구: 헝가리, 루마니아, 구동독을 중심으로.” 『농업경제연구』. 38.2, 189~

- 이양호. 1998. “중국농촌토지제도의 변화와 농민, 1978~1997.” 『한국정치학회보』, 32.3, 255~278.
- Bromley, Daniel W. 2000. *Perspectives on Privatization during Transition*. Paper presented at the KATO Symposium.
- Brooks, Karen et al. 1996. *Agricultural Reform in Russia: A View from the Farm Level*. World Bank Discussion Paper, no.327.
- Csaki, Csaba and John Nash. 1997. *The Agrarian Economic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Situation and Perspectives*. World Bank Discussion paper no.387.
- _____ and Laura Tuck. 2000. *Rural Development Strategy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World Bank Technical Paper no.484.
- Cungu, Azeta and Jonan F.M. Swinnen. 1997. “Agricultural privatization and decollectivization in Albania: a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in Swinnen (ed.), 55~89.
- _____ and Jonan F.M. Swinnen. 1998. *Albania's Radical Agrarian Reform*. Policy Research Group,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Katholoeke Universiteit Leuven, Working Paper no.15.
- de Melo, Martha, et al. 1996. *From plan to Market: Patterns of Transition*.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1564.
- Euroconsult. 1995. *Farm Restructuring and Land Tenure in Reforming Socialist Economics: A Comparative Analysis of Eastern and Central Europe*. World Bank Discussion Paper no.268.
- Greif, Franz. 1997. “Rural development policies.” in *Agricultural Reforms in the Transition economic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FAO Report.
- Hughes, Gabriel. 1997. “Experience of Reforms and the role of Agriculture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CEE) and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 Transition Economies.” in *Agricultural Reforms in the Transition economic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FAO Report.
- Lerman, Zvi. 1999. *Agriculture in ECE and CIS: from Common Heritage to Divergence*. World Bank.
- _____. 2000. “Status of Land Reform and farm restructuring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 Regional Overview.” in Csaba Csaki and Zvi Lerman (eds.), *Structural Change in the Farming Sector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World Bank Technical paper no.465, pp.3~20.
- Lerman. 2001. *A Decade of Land Reform and Farm Restructuring What Russia can learn from the World Experienc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Discussion Paper no.7.01.
- Macours, Karen and Johan F.M. Swinnen. 1999. *Patterns of Agrarian Transition: A Comparison of Agricultural Output and Labor Productivity Chang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the Former Soviet Union, and East Asia*.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Policy Research Group Working Paper no.19, 1999.

- Mathijs, Erik. 1997. "An historical Overview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land reform." in Swinnen (ed.), pp.33 ~ 53.
- _____ and Johan F.M. Swinnen. 1997. *The Economics of Agricultural Decollectivization in East Central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Policy research Group Working Paper no.9.
- _____ and Johan F.M. Swinnen. 1999. "Major Features of the New Farming Structur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 Csaba Csaki and Zvi Lerman (eds.), *Structural Change in the Farming Sectors of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 World Bank Technical paper no.465, 22 ~ 38.
- Milczarek, Dominika. 2000. *Privatization of State Farms in Poland: A New Institutional Approach*. Paper presented at the KATO Symposium.
- Norsworthy, L.Alexander and Olga Paluba. 2000. "Impact of the Transition: Approaches and Findings." in L.Alexander Norsworthy(ed.), *Russian Views of Transition in the Rural Sector: Structure, Policy Outcomes, and Adaptive Responses*, World Bank, Washington, pp.1 ~ 15.
- Rabinowicz, Ewa and Johan F.M. Swinnen. 1997. "Political economy of privatization and decollectivization of Central and East European agriculture: definitions, issues and methodology." in Swinnen (ed.), 1-31.
- Swinnen, Johan F.M. 1997a. *An Explanation of Land Reform Choic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Policy Research Group Working Paper no.5.
- _____. 1997b. "The choice of privatization and decollectivization polic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agriculture: observations and political economy hypotheses." in Swinnen (ed.), 363 ~ 389.
- _____ and Erik Marthijs. 1997. "Agricultural Privatization, Land reform and Farm Restructuring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in Johan F.M. Swinnen et al. (eds.), *Agricultural Privatization, Land reform and Farm Restructuring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pp.333 ~ 373.
- _____ (ed.). 1997. *Political economy of agrarian reform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shgate: Aldershot.